

(2)개월차 IPP보고서

2021 년

전공계열	컴퓨터공학부	전공	빅데이터트랙 웹공학트랙	학번	1491051	성명	박병민
전체실습기간	2021년7월1일~ 2021년12월31일(6개월)						
해당개월차 실습기간	2021년 8월 1일~ 2021년 8월 31일						
실습기관	네이버시스템			부서	스마트페이먼트팀		
수행직무	웹 개발 (IT시스템 개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지도 담당자	이민정 수석님		

(2)개월차 현장실습일지

기간	주요업무
1주차	-용인 서울 수납시스템 프로젝트 일마감관리 및 영업관리 메뉴 UI 정의서 작성 일마감관리 및 영업관리 메뉴 UI 설계문서 작성
2주차	-용인 서울 수납시스템 프로젝트 외부정산관리 메뉴 UI 정의서 작성 외부정산관리 메뉴 UI 설계문서 작성
3주차	-용인 서울 수납시스템 프로젝트 미납관리 메뉴 UI 정의서 작성 미납관리 메뉴 UI 설계문서 작성
4주차	-용인 서울 수납시스템 프로젝트 일마감관리 메뉴 UI 정의서 수정 및 검토 미납관리 메뉴 UI 정의서 수정 및 검토
5주차	-용인 서울 수납시스템 프로젝트 일마감관리 메뉴 UI 정의서 및 설계문서 작업 결과물 발표 및 리뷰 미납관리 메뉴 UI정의서 및 설계문서 작업 결과물 발표 및 리뷰 월간보고서 작성

현장실습주요내용(2~4p)

*느낀점을포함하여작성하되관련사진으로1매를작성하고,사진에대한설명을붙이기바람

인턴을 시작한지 2 달 쯤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잡히고 출근을 하는 것도 어느정도 익숙해진거 같다. 일요일에 노는 일이 생겨도 월요일 출근을 걱정하며 일찍 집에 들어와 월요일 준비하는 내 모습을 보며 점점 직장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 인턴으로 입사 했을 때에는 웹 개발 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지식도 많이 부족하여서 선임분들이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맡은 부분을 혼자 작업을 한 후 선임분들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의내용이나 작업물에 대해서 담당 선임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먼저 작업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도 생겼다. 일을 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알 거 같았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도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것에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도 꾸준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요금 수납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실무에서 처음 참여해보는 프로젝트고 초기 화면설계부터 참여할 수 있어서 배우는 점도 많고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는 메뉴별로 개발을 하기 전 UI 설계문서와 UI 정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UI 설계서를 작성해 본 적이 있어서 나름 자신감이 있었지만 업무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경험했던 것이나 생각 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다고만 들어본 C#으로 작성된 프로젝트를 분석해야 했고 화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하나씩 분석해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다. 특히 분석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C#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화면을 하나씩 완성하고 선임분과 작업한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결과물을 검토하고 수정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업무에 적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뿌듯함과 업무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C#이라는 언어를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었지만 코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서 나중에 혹시 또 C#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때나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지금보다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요즘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턴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좋은 의자로 모든 직원들의 의자가 바뀌었다. 특히 의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평소에는 허리가 많이 빠근했는데 의자가 바뀐 이후로는 허리가 빠근하지 않고 조금 더 편한 자세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이것 뿐만 아니라 생일이 있는 사람은 소정의 상품권 증정과 생일파티를 해주는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거 같았다.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고 선임들이 생일은 선임의 생일파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회사의 직원이 되어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2 달 간의 인턴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무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UI 정의서와 설계문서를 작성해보고 팀 회의에서 발표까지 해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팀 회의에서 나의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수석님과 책임님의 리뷰를 들었던 것이 앞으로 나의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았다. 또한 선임분들의 결과물 발표를 보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선임분들의 결과물 발표를 보고 수석님과 책임님의 리뷰를 들으면서 설계문서나 UI 정의서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분석하고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었다. 나는 충분히 분석했다고 생각했는데 책임님과 수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선임분들의 발표자료를 보면서 내 발표자료에 수정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 모든 것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결과물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다음번에 또 이런 업무를 맡게 된다면 조금 더 발전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남은 인턴기간동안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끊임없이 공부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다.